

與 ‘내란 청산’ 메시지로 ‘텃밭’ 지지층 결집 총력

6·3 지방선거 D-15

민주당, 광주서 중앙선대위 개최

정청래 “내란 극복 1980년 5월 광주 덕분”
한병도 “오월 정신 헌법 수록 개헌 재추진”
공천 갈등 속 지지도 ‘위험’...호남 달래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5·18 민주화운동 46주년을 맞은 18일 ‘내란 청산’ 메시지를 전면에 내세워 호남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특히 당 지도부는 광주를 찾는 국민의힘에 대해 “이들이 12·3 비상계엄의 주범이자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에 반대한 세력”이라고 비판하며 바짝 날을 세웠다.

정청래 총괄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임택 광주 동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중앙선대위를 개최했다. 회의장에는 ‘오월의 정신을 이어, 민주주의의 내일을 열겠습니다’라는 글귀가 적힌 텃밭을 걸었다.

정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비상계엄 내란을 극복할 수 있었던 힘은 1980년 5월 광주”라며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다 쓰러져간 광주 영령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그는 “5·18이 없었다면, 1987년 6월 항쟁이 없었다면, 지금의 헌법이 없었다면 우리는 연평도

꽃게밥이 됐거나 어느 이름 모를 지하 벙커에 끌려가서 죽도록 맞고 고문을 당했을지 모른다”며 “(그런데 지금도) ‘윤어게인’을 외치고 윤석열 내란수괴를 다시 세우려는 내란 옹호 세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그렇기에 5월 광주는 끝나지 않았고 내란은 아직도 끝나지 않고 현재 진행형”이라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헌정 질서를 위기에 빠뜨렸던 내란 세력을 반드시 심판하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승리의 역사를 쓰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이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서 무산된 점도 적극 부각했다.

한병도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국민의힘 반대로 (개헌이) 현실화하지 못했다”며 “5월 영령 앞에서 약속드린다. 민주당은 조속히 개헌을 재추진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드시 수록하겠다”고 공언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5·18 민주항쟁의 결과로 얻은 우리의 민주적 선거 제도를 이번 개헌의 방해 구실로 악용했다”며 “이들이 저지른 역사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지도부의 광주 방문은 지방선거 공전을 둘러싸고 발생한 크고 작은 잡음으로 호남 지역 분위기가 뒤숭숭한 가운데 이뤄졌다.

전날 정 위원장의 전북 방문에서도 김관영 전북지사 후보에 대한 당의 처분에 불만을 가진 당원들의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총괄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정청래 당대표가 18일 임택 광주 동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조영권 기자

이런 상황에서 지도부는 5·18 기념일을 계기로 당 정체성의 근간을 이루는 ‘오월 정신’을 부각해 ‘집토끼’ 결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정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호남의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호남 발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반드시 호남 발전을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전남·광주가 이재명 정부의 첫 행정통합 사례란 점을 부각하며 “(이곳이) 이재명 정부의 5급3특 전략의 출발점이자 첫 성공 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

민행배, 5·18 맞아 인권도시 비전 발표
인권헌장 제정·인권도시 추진조직 설립

더불어민주당 민행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가 18일 5·18민주화운동 46주년을 맞아 전남 광주통합특별시장 인권도시 비전을 발표했다.

민 후보는 이날 정책 발표문을 통해 “전남광주를 세계가 배우는 인권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민 후보는 “광주는 국가폭력 앞에서도 인간의 존엄과 시민권이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세계에 증명할 도시”라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그 정신을 정부 운영을 포함해 시민의 삶 속 민주주의와 인권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 후보는 인권도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4대 방향으로 ▲인권이 행정의 기준이 되는 특별시 ▲시민 삶 속 민주·인권 정신이 살아있는 도시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무장애·포용 도시 ▲광주정신을 세계 인권도시의 미래로 확장하는 국제도시 전략을 제시했다.

실천 공약으로는 ▲전남광주 인권헌장 제정 ▲인권도시 추진조직 설립 ▲미래형 인권행정 체계 구축 ▲인권도시 시민공론장 운영 ▲도시 전체 배리어프리 전환 ▲AI 인권 글로벌 협력 허브 구축 등을 발표했다.

민 후보는 “시민이 직접 말하고, 듣고, 토론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과정 속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감수성이 도시 전체에 스며들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변은진 기자

국힘, 오월 정신 또 ‘정쟁 도구화’...비난 쇄도

장동혁 “민주, 5·18 권력 확장 도구 삼아”
5·18 앞세운 정치 행보 지역 민심 싸늘
진보 성향 야권·시민사회 ‘악어의 눈물’
민행배 “진정성없는 정치 연출 무시해야”

국민의힘의 5·18 민주화운동 제46주년 기념식 참석을 두고 광주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민주당을 향해 “5·18을 권력 확장의 도구로 삼고 있다”고 주장하자,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민의힘이 오히려 오월 정신을 또 다시 정쟁의 도구로 끌어들이고 있다”며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장 대표는 18일 오전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기념식 참석에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을 겨냥한 비판 메시지를 내놨다.

그는 “이재명과 민주당은 늘 5·18 정신을 앞세우지만 저들에게 5·18은 지켜야 할 가치가 아니라 권력 확장의 도구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장 대표는 “1980년 광주의 5월은 자유와 인권을 향한 숭고한 희생”이라며 “민주당이 추진한 대법관 증원, 4심제, 전담재판부, 법외국죄 등은 방탄과 정적 제거를 위한 반헌법적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장 대표는 “공소취소 특검”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종말 선언이라며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헌

정질서를 다시 세우는 길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과 진보 성향 야당은 국민의힘의 광주 방문 자체가 진정성 없는 정치 행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민행배 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저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방문이 진심 어린 사회와 참여의 걸음이라고 믿지 않는다”며 “오히려 분노한 시민들에게 ‘계란’이라고 맞으며 피해자 행세를 하려는 계산된 일정으로 보인다”고 직격했다.

민 후보는 “장 대표의 앞은 계산 따위에 맡겨 두지 말고 그가 원하는 장면을 만들어주지 말아야 한다”며 “그냥 무시하고 여유로운 침묵으로 장동혁 대표의 지지분한 의도를 좌절시켜야 한

다”고 강조했다.

이중욱 진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는 국민의힘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개헌안 표결 불참을 거론하며 “전남광주 유권자들께서 ‘국힘 0표, 국힘 폭망’을 현실로 만들어 주실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강은미 정의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도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무산시키고 헌정질서 수호를 외면한 국민의힘의 파렴치한 행태를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도 이날 논평을 내 “국민의힘은 오늘까지도 국민을 버리고 내란 수괴를 지키는 길을 선택했다”며 “헌법 앞에서 약한 국회의 책무를 끝내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변은진 기자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사람만는 廣告인네”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 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한게 이어 드리겠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 광고국 ☎ 650-2099
650-2071-2
F. 650-2016
▶ 시내지역 및 각 지방지사

해산 및 채권제출 공고(2차)

본 회사는 2026년 5월 18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현재 청산절차가 진행중인 바 당 회사에 해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분이나 채권을 가지고 계신분은 공고 게재 익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 및 그 채권액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간내에 이의나 채권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9일
주식회사 건강나라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533
청산인 이정

광주매일신문이 인재를 찾습니다

광주매일신문이 지식 정보화 시대를 이끌 능력있고 참신한 인재를 찾습니다. 장의적 사고와 진취적으로 지역 문화창달과 지역발전의 이룰 패기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모집 분야

구분	근무예정지	자격 사항
지역주제기자	순천, 광양, 고흥	- 당사 인사규정의 경력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경력자 우대

■ 전형 방법
1차 서류전형 - 합격자 및 면접일정 개별통보
2차 면접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 제출 서류
가. 이력서(사진 부착, 연락처 명기) 1부
나. 자기소개서(세부 실무 경력사항 중심 작성, A4 2매 분량)
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라. 자격증 사본(소지자에 한함) 1부
마. 경력증명서 1부

■ 서류 접수
가. 접수기간: 2026년 5월 26일(화)
나. 접수방법: 본사 직접접수 및 우편접수 가능
다. 접 수 처: 광주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 광주매일신문 경영지원국 인사담당자
라. 문의전화: 062) 650-2011

■ 기타 사항
가.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나. 국가보훈대상자는 관계법령에 의거 우대함
다. 이력서 상단 우측에 모집분야 명기
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이내 본인이 요청 할 경우 반환받을 수 있음.

광주매일신문 광주매일TV
http://www.kjdaily.co.kr

[시세반값 초급매 물건들입니다]

- 유동로타리 35미터대로변코너 꼬마빌딩/상속분 땡처리 주차4대/매2억5,900(미니커피,제과,꽃집,선물코너최적)
- 유동 모텔5층건물 룠20개주차4 급매3억2,000(사무실용도최적)
- 송정동 역출구150미터 초역세권 상업지 2차선접 대106평 평당300총가3억1,800(구옥있음)식당,사육,다가구용최적
- 광주역대로변 광장코너 다이아몬드 땅93평 급매11억
- 매곡동 대단지 아파트 입구대로변 코너 대311평 급매평당650
- 북동 대로변코너 횡단보도앞 상업지대188평 5층빌딩 감정가35억 급처분가 29억(재개발입주권3개는 덤입니다)

[교환]
상가·모텔·주택·땅 교환합시다(웃돈도 줍니다)
###연락주세요/바로 연결하겠습니다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상담

1976년부터 우리지역에서 발생하는 기아, 미아, 미혼모 아동 및 결손아동을 일시보호 후 친부모를 찾아주거나 국내입양 상담으로 양부모를 결연하여 아동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 주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입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후원 및 자원봉사
광주영아일시보호소

상담 문의 062)222-1095, 1096

대명OA

취/급/품/목

- 복사기
- 컴퓨터
- FAX
- 레이저 및 잉크젯 프린터
- 전산소모품
- 레이저(토너/드럼)
- 카드리지
- 각종 인크류
- 복사용지
- 팩스용지
- 판매
- 임대
- A/S

T.375-5880